

담양군, 원예용 수정별 관리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담양군이 지난 10월 28일 담빛농업관과 고서문화관에서 관내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원예용 수정별 관리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원예용 수정별 관리를 통한 동절기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마

동절기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위한 교육 관내 원예농가 150여 명 참석...현장 적용 설명

련되었으며, 관내 원예농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양봉농가와 연계해 230ha, 787호의 시설원에 농가 동절기 원예농산물 생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정별을 공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담양군 양봉협회 문정택 농가에서 강사를 맡아 교육을 진행했으며, 원예용 수정별 준비 및 벌통 설치 방법, 봉군 관리방법 등을 영농현장에서 적용하기 쉽게 설명해 참

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는 "수정별 관리에 관해 궁금했던 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농약사용 시 주의점 등을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수정별 공급 및 관리에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실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간담회

농업기술 등 현장 노하우 직접 전수

장성군이 청년농업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25일 장성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초대받은 청년농업인은 후계농 선정 1~2년차의 초보 농업인 35명으로, 선배 농업인의 조언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멘토링을 맡은 현장지원단은 농업 마이스터, 선도 농가 등 전문 농업인들이다. 농업기술 전수는 물론 농산물 판로 확보와 유통 방법 등 다양한 현장 노하우를 아낌없이 제공해 호평을 얻었다. 지원단은 간담회 이후에도 청년농업인 농장에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파악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컨설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격려 인사를 전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청년농업인과 농업 전문가가 환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장성 농업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기 바란다"면서 "군도 일류농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현재 민선8기 공약인 '2040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프로젝트' 등 우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성=김수권기자

구례군, 안전귀가 태양광 센서 등 설치

야간 안전 귀가 및 범죄 예방...낮에 태양광 자동충전·동작감지용

구례군은 지난 10월 8개 읍·면 어두운 골목에 LED 태양광 센서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례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으로 8개 읍·면 복지기동대원 50여 명과 연계하여 어두운 골목길에 대해 LED 태양광 센서 등 63개를 설

치하였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 센서 등은 낮에는 태양광으로 자동 충전되고, 어두운 밤에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가 인식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동작감지용 센서 등이다. 가로등이 없어 골목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 어르신 낙상예방, 귀갓길 여성 보호, 청소년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마을 주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했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세심하게 이번 사업과 같이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구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민·관 합동 캠페인

빛가람동 한전KDN사거리서 노인교통안전지킴이 등 6개 기관 70여명 참여

나주시는 빛가람동 한전KDN사거리 일원에서 '고맙습니다 민·관 합동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는 운병태 시장과 시청 직원, 노인교통안전지킴이, 교통안전공단, 나주경찰서, 빛가람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6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현수막, 어깨띠, 물티슈·

마스크·치솔살균기·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활용해 사거리로 오가는 차량, 보행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 중요성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7월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3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또 '안전속도 5030준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이내 불법 주정차 근절', '전동 키포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 '보행자 중심의 일단 멈춤' 등 사고 없는 성숙한 교통문화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홍보했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 이태원 참사에 행사 및 공연 취소·연기

전남 구례군은 서울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가 애도 기간에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 및 공연을 취소·연기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2일 예정된 산동면민 체육대회와 5일 예정된 구례 산수유 웰니스 페스티벌 개최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5일 열린 구례군 소상공인의 날 기념 및 화합 한마당 행사에 축하공연과 장기자랑 등의 이벤트는 취소하고 경건한 분위기에 서 기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순호 군수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했고, 전 국민이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이에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라며 "앞으로 개최할 행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국화향연 축제서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

13일까지 오전 10시 ~ 오후 6시

화순군이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남산공원 일대에서 개최하는 화순 국화향연 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판매 부스는 행사 기간에 군민회관 진입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1개 업체가 화순군에서 생산·가공한 농특산물(고구마, 된장, 벌꿀, 불미나리인진쑥즙, 마, 돼지감자차, 버섯, 식혜 등) 60여 가지 품목을 판매한다. 이번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와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국화향연 축제에서 화순군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